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카지노 단도박자를 중심으로

강 준 혁
(서강대학교)

주 완 태*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도박자들의 회복 경험을 탐구하는데 있다.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을 통해 총 5명의 사례자를 선정했고,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분석했다. 첫째, 연구절차에 따라 '사례 내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 경험의 맥락'을 드러냈다. 둘째,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총 13개의 사례 간 통합주제를 추출했다. 분석 결과 깨어진 환상, 죽음불안을 통해 사례자들은 단도박을 시작했으며, 고독감,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 불안한 노후, 늙은 몸, 무료함, 생활도박의 유혹 때문에 회복과정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사례자들은 새로운 생활세계 구축, 생활고 극복, 타자를 통한 반성, 대안적 활동, 소박한 꿈과 희망 생성을 통해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죽음 성찰 기회 제공, 서비스 접근성 확대, 노인 일자리 제공, 회복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 노년기 특성이 반영된 회복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안했다.

주요 용어: 노인, 도박, 중독, 회복, 사례연구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7S1A5B8057479)

IRB No. SGUIRB-A-1801-02, 서강대학교

* 교신저자: 주완태, 성균관대학교(skwwwee34@naver.com)

■ 투고일: 2018.3.12 ■ 수정일: 2018.6.14 ■ 게재확정일: 2018.6.21

I. 서론

‘도박 공화국’ 이 말은 한국 사회에 퍼진 도박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함축적인 표현이다(김세진, 2008, p.199). 사행 산업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p.34). 만 20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3,904만 명 중 197만명이 유병자로 추정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p.34). 이 수치는 한국의 성인 100명 중 5명이 도박중독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동일한 척도(CPGI: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가지고 2012~2013년 사이에 측정된 몇몇 나라의 유병률(호주 2.3%, 체코 2.3%, 뉴질랜드 1.3%, 스웨덴 1.4%)과 비교해 보아도 높은 편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p.259). 모든 국가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측정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5.1%의 유병률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파고든 도박중독은 우선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도박중독에 빠진 개인은 파산, 이혼 등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Abbott & McKenna, 2005, p.560; 이근무, 강준혁, 이혁구, 2015, p.35). 그리고 도박중독은 다른 중독과 달리 돈이 문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횡령, 사기 등 이차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한다(Blaszczyński et al., 1989, p.149; 안상원, 한상철, 2013, p.110).

도박중독 때문에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78조(2009년 기준)에 이른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p.103).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박문제가 개인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간 학계에서도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수행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도박중독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김영주, 이인해, 2010; 김충렬, 2010;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Custer, 1984)이 있으며, 치료 및 회복에 관한 연구들(Anderson et al., 2009; Ferentzy et al., 2006; Hodgins et al., 1999; Hodgins & El-Guebaly, 2000; Hollander et al., 2005; Leung & Cottler, 2009)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도박중독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박중독

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일반 성인 도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세대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의 대상인 노인층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일반 성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김태현, 2007, 12p). 가령, 생물학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활동력이 떨어진다(김태현, 2007, 12p). 사회적 차원에서도 노인은 사별,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권중돈, 2009, p.67). 이러한 차이로 인해 노인 도박자들은 일반 성인과 다른 회복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인도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들은 노인 도박 중독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박지용, 전진숙, 권명환, 박신형, 오병훈, 2008, p.81; 홍혜미, 김용근, 2014, p.85). 하지만 아직까지 노년기 특성을 고려하여 도박자의 회복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도박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과 다른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도박자들만의 독특한 경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II. 이론 검토

1. 노인 도박자의 특성(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보편적인 속성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속성은 노인 도박자들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육체적으로 기능을 상실해간다(권중돈, 2009, p.47). 육체적 기능 상실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운동능력의 상실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능력을 상실한다. 운동능력 상실과 같

은 육체적 노화를 경험하는 노인들은 자기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왕명자, 2010, p.108). 신체적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노인 도박자들 역시 육체적 노화로 인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노인들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노인층은 배우자 및 친구의 상실, 자녀들의 독립과 같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권중돈, 2009, p.67). 노인 도박자들 역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노인에 비해 노인 도박자들은 도박문제로 인해 더 장기간 깊은 고립을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 도박자들이 겪는 관계단절 문제는 그들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의 지지와 같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다(권영실, 김현정, 김소라, 현명호, 2014, p.612). 특히,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 있는 노인 도박자들은 일반 성인보다 더 장기간 관계단절 문제를 겪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노인 도박자들의 회복을 바라볼 때 그들이 관계단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차원에서 노인도박자의 특성을 살펴보자. 노인 도박자들의 심리적인 문제는 앞서 언급한 육체적 기능저하, 사회적 관계 단절과 같은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노인 도박자들은 육체적 기능 저하로 인해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가올 죽음은 그들에게 불안을 안겨준다. 사회적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그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다. 기본적으로 노년기 인간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 고독감을 경험한다(권중돈, 2009, p.257).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감은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Lemon et al., 1972, p. 517). 그런데 노인 도박자들은 사회적 낙인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독감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윤명숙, 채원순, 2010, p.274).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도박중독을 경험한 노인들은 육체적·사회적·심리적 문제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도박자들의 회복을 바라볼 때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육체적 노화·사회적 관계 단절·죽음 불안 및 고독감과 같은 특성들을 노인도박

자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한다.

2. 노인도박자의 회복 양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젊은 층의 도박자들과는 달리 노인 도박자들은 노인이 갖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도박중독자들의 회복 양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 도박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회복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김한우, 2013, 138p). 기존에 제시된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은 ‘대박의 꿈 깨어지기-대박의 꿈 포기하기-빠져 나오기-자유로워지기’ 단계로 나뉘기도 하며(윤명숙, 채완순, 2010, p.285), ‘현실직면 단계-수용인정의 단계-행동실천의 단계-변화 성장의 단계’로 구분되기도 한다(채정아, 2013, p.97).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회복의 계기를 ‘바닥체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노인 도박자들의 회복과정이나 양상 역시 이와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의 도박자들과는 달리 노인 도박자들에게는 ‘노인 도박자의 특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이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도박중독자들의 회복양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가령,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존재해야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노인도박자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노년기 관련 문헌들만 살펴보더라도 노인들은 자신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한다(이동욱, 2007, p.87).

이 같은 차이로 인해 노인도박자들의 회복과정은 젊은 도박자들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조건이다. 젊은 도박자들과 노인 도박자의 회복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개입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상황이 다르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노인도박자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회복 양상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적합한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이유는 노인 도박중독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수 중심의 양적 접근보다는 내부자적 관점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연구의 사례들이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비교적 주변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연구에서는 주로 주변과 구분되는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이슈를 탐구한다(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p96; Stake, 1995; Creswell, 2013, p.199).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노인 도박자들 역시 도박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일반 도박자나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자들은 사례연구가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경험의 맥락을 드러내고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사례들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 사례자 선정

연구자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을 활용해 연구에 참여할 사례자를 선정했다. 이 방법은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도움을 얻어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Miller and Carpenter, 2009). 연구자들은 단도박모임, 중독관리센터 등에서 연구 주제와 맞는 사례자를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연구자들은 사례자 추천을 부탁하기 전에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나름대로의 선정기준을 만들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전후 노인일 것. 둘째, 단도박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도박중독자의 회복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12개월 이상 단도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을 회복 기준으로 삼는 연구들이 다수를 이룬다(김영훈, 2005, p.53; 윤명숙, 채완순, 2010, p.276; 채정아, 2013, p.28; 강준혁, 2016, p.84). 12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다수가 단도박에 실패해 왔기 때문이다(Echeburúa et al., 2001, p.380; Hodgins & El-Guebaly, 2004, p.73).

연구자들은 사례 선정 초기 다수의 사례자를 추천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앞서 언급한 기준에 적합한 총 5명의 사례자를 최종 선정했다. 사례자들의 기초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사례자의 기초정보

구분	성별	연령	도박기간	단도박 시기	가족관계
사례1	남	73	42년	12년	독거
사례2	남	80	39년	14년 4월	독거
사례3	여	64	20년	12년 10월	독거
사례4	여	63	10년	14년	독거
사례5	여	62	13년	15년 10월	친구(동거)

3. 자료수집 방법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수집했다. 1:1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면담은 개별 사례자 당 2회 실시했다. 평균 면담시간은 90분이었다. 원활한 면담 진행을 위해 도박중독 회복과 관련된 면담질문지를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어떻게 도박에 중독되었는지,’ ‘단도박 계기는 무엇인지,’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으로 구성했다. 면담은 사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카지노 주변 카페에서 진행됐다. 면담 기록은 모두 녹음했으며, 녹음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raw data)로 만들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Creswell(2013)이 제안한 사례연구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첫째,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을 위해 ‘사례 내 분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의 맥락, 역사,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독

문제를 다루는 연구의 특성상 지나친 정보노출은 사례자의 익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개인의 생애사를 모두 보여주기 보다는 회복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개별 사례를 초월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 위해 '사례 간 분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개의 공통된 주제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개별 주제들을 단도박 계기, 단도박 후 갈등 요인, 회복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5. 윤리적 문제 고려 및 엄격성 확보전략

가. 윤리적 문제 고려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2018년 1월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수행 승인을 득했다.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기준을 따랐다. 그 밖에도 사례자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연구자들은 조사수행 전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연구윤리교육을 받았다. 둘째, 사례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 거주지 등의 민감한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셋째, 사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의를 얻었다.

나. 엄격성 확보전략

엄격성(rigor)은 연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p.322; Lincoln & Guba, 1985; Padgett, 2017).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prolonged engagement)이다. 연구자들은 사례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면담 전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다원화(triangulation)이다. 다원화는 연구자, 이론 등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 확실한 증거를 얻는 방법이다(Creswell, 2013, p.42). 이 연구에서

는 자료출처 및 분석자 다원화를 적용했다. 우선 자료출처를 다원화하기 위해 심층면담 자료 이외에 사례자들이 단도박 과정에서 기록했던 메모, 수기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분석자 다원화를 위해 각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분석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셋째,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member checking)이다.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분석결과를 개별 사례자들에 보여주고 조언을 구했다.

IV. 분석결과

1. 사례 내 분석

가. 사례자 1

사례자1은 73세 남성으로 빠칭코와 카지노 도박에 중독되었으나 2012년 단도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자는 젊은 시절 전화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이 시기에 직장동료들과 주말마다 화토를 즐기며 놀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례자에게 있어 도박은 단순한 놀이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직장동료들의 권유에 의해 '빠칭코'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직장동료들의 권유에 못 이겨 그곳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것이 중독의 시작이었다.

사례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은 많이 벌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래서 도박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는 도박을 통해 고독감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슬롯머신과 사랑에 빠진 것이다.

도박과 사랑에 빠진 사례자는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빠칭코와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도박중독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도박중독자로서의 그의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다. 2012년 어느 날 그는 새벽까지 카지노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었다. 그날도 역시 그는 잭팟을 기대하고 앉아있었다. 그러나 기계는 그의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수 천만 원을 기계에 쏟아부었지만 기계는 토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카지노 영업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마음을 접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바로 다른 사람이 앉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그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가 1분 전 앉았던 그 자리에서 잭팟이 터지고만 것이다. 행운의 주인공은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했다. 사례자는 이때 받은 충격으로 “카지노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사례자에게 찾아온 이 같은 불행은 그를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사례자는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기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자신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생각 이후 그는 더 이상 도박을 지속할 경우 ‘죽음’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도박중독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스스로 상담사에게 병원에 입원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중독관리센터의 도움으로 그는 ○○병원에 입원해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독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퇴원 후 그는 중독관리센터 상담사에게 꾸준히 상담을 받았으며, 단도박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사례자는 단도박 과정에서 카지노 영구출입정지 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오락실 옆을 지나가는데 그 오락실 감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한참동안 오락실 감판을 보고 서 있곤 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사례자는 단도박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다. 게다가 사례자는 카지노에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적 궁핍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단순히 단도박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생활고 극복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일용직 용역사무소를 찾아갈 생각으로 무작정 나갔다고 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높고 힘도 없고 몸으로 하는 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자신을 써줄지 걱정이 돼서 용역사무실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가고 돌아오는 일을 수십 번 반복했다고 한다. 그래도 살아야했기에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 용역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도 용역사무소 사장은 사례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한다. 그에게 이 일을 연계해주었으며 계속 나오라고 동려 해주었다고 한다. 용역사무실에 나가면서 피폐해진 그의 삶에도 희망이 보였다.

조금씩 경제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하고 삶의 희망이 보이자 이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고 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락실 간판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박에 대한 흥미를 더 이상 갖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그동안 도박중독으로 인해 하지 못한 공부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나. 사례자 2

사례자는 78세 남성으로 카지노 도박에 중독되었으나 2014년에 단도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자는 공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자는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들과 화투를 치며 놀음에 맛 들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즐기는 수준이었을 뿐 판돈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례자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때 그는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우울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다. 또한,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혼자만 한국에서 지내다보니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 친구들이 놀러왔고, 이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사례자는 한국에도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자 더욱 카지노에 몰입하게 됐다. 물론 초기에는 돈을 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도박에 더욱 빠져들게 됐으며 따는 날 보다 잃는 날이 더 많아졌다. 직장생활도 소홀하게 됐으며 자녀들 또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결국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가지고 있던 집과 함께 전 재산을 카지노에 쏟아 부었다.

자식들에게도 소홀하다보니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심지어 사례자의 딸은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사례자가 도박을 끊지 못하자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한다. 딸의 극단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례자는 도박을 끊지 못했고 그 후 더 이상 딸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식이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카지노행은 멈출 수가 없었다.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례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날린 이후에는 카지노 주변에 거주하면서 생활도박인으로서의 삶의 살아가게 되었다.

2013년경에는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사례자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렵게 돈을 빌려 그에게 주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꼭 미국에 다녀올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사례자는 아침에 공항으로 가던 길에 카지노로 빠지고 말았다. 돈이 생기니 미국보다 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이 더 앞섰던 것이다. 금방 배팅을 해서 따면 당당하게 그 돈으로 미국에 다녀오고 아들에게서 빌린 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하룻밤 꿈에 불과했던 것이다. 초반에는 따는 듯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카지노 귀신이 붙었는지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조금 잃자 본전 생각이 났던 것이다. 스스로를 통제 못한 그는 결국 아들이 마련해준 400만원을 단 4시간 만에 모두 잃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놀음에 미쳐 살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생각해주고 아들이었다. 이때 사례자는 비참함을 느꼈고, 죽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례자는 산에서 목을 매고 죽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의 삶도 너무 비참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죽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산 속에서 나무에 줄을 매고 목에 거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포기했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꼈다고 한다.

사례자는 자살시도 후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의 나이는 이미 고령이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게다가 그에게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자식들과 단절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참여자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월세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으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허탈함으로 매일매일을 술과 함께 보냈으며 세상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 중독관리센터를 찾아갔으며 그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가족처럼 자신을 맞아주는 상담사의 위로에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간의 아픔도 치료가 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를 빠른 회복의 길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봉사활동이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독관리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례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되었으며, 자신과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같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과 허송세월을 보낸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마음이 정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다. 사례자 3

사례자 3은 64세 여성으로 카지노 도박에 중독되었으나 2012년에 단도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자는 20년이란 긴 세월동안 도박에 빠져있었다. 도박중독 이전에 사례자는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물건을 수입해서 파는 무역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주 홍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홍콩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지인들이 놀러왔고, 지인들을 따라 홍콩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하게 되었다. 처음 카지노에 출입한 그녀는 모든 것이 놀라웠다고 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당시에는 카지노의 화려한 외형만이 사례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뿐 카지노의 게임들은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같이 카지노에 갔던 지인이 사례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바람에 돈을 받기 위해 그녀는 다시 카지노를 찾아갔다. 다시 찾아가 카지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인을 기다리려니 심심해서 게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자는 이때 많은 돈을 땀고, 이때부터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회상했다.

카지노 맛을 본 후, 사례자는 홍콩에 체류하는 기간이면 매일 카지노로 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꽤 많은 돈을 땀다고 한다. 특히, 그녀는 일반 객장이 아닌 VIP객장을 이용했는데 그때는 VIP객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도 부러웠다고 한다. 돈을 쓰는 규모도 달랐다. 사례자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은 사례자의 바람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카지노 출입 초반 승승장구하던 사례자의 운도 다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출입하면 출입할수록 그녀는 점점 돈을 잃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자의 카지노 출입은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카지노의 모든 정신과 시간을 쏟다보니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다. 그래서 사례자는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녀의 카지노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 되었다. 홍콩에서 돌아온 그녀는 한국에 내국인 카지노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홍콩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 단방에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기 위해 사례자는 카지노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대리 배팅까지 시도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배팅을 대신 해주는 사람을 ‘병정’이라고 부르는데, 사례자는 병정을 동원해 한 번에 많이 배팅해서 많이 따러했다. 하지만 결과는 사례자의 생각과 많이 달랐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다. 이로써 사례자는 무일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자는 카지노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했고, 카지노 주변에 계속 머물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고용했던 병정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다. 카지노 앵벌이를 고용해 배팅하던 고용주에서 피고용자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화려한 삶을 꿈꾸던 그녀에게는 맞지 않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사례자는 몇 번 앵벌이를 하다가 접게 되었다. 주변에서 먹고 살려면, 그거라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구슬했다. 이제 사례자에게는 노름할 돈도 먹고 살기위한 돈도 없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사례자는 며칠 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었다. 모든 것을 카지노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공과금조차 낼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례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면제를 구입했으며, 잠들기 전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을 삼켜버렸다. 약을 삼킨 후 그녀는 지저분하지 않고 고통 또한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자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면제와 술로 인해 몸만 고통스러울 뿐, 쉽게 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죽을 수 없었던 사례자는 상담이나 받아보자 하는 마음에 중독관리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었으며, 상담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사는 사례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은 카지노 출입 정지 신청이었다. 사례자는 지원프로그램의 참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지노 출입정지 신청을 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사례자 역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은 나이 6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았고, 가족도 없고, 누군가 돌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간 홀로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에 20년이란 세월동안 빠져있었기 때문에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도박생각이 계속 났으며, 도박을 하지 않는 그 시간은 자신에게 무료함 그 자체였다고 한다. 그래서 사례자는 중독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례자의 구술에 의하면, 그래도 교육,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마음의 위안은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례자는 몇 년 동안 중독관리센터 및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면서 도박중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부하다보니 사례자에게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다.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사례자는 상담사로 일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중독관리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상담사로 일하는 동안, 다른 도박중독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깨우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는 상담사일과 더불어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중독과 중독관리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속되는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자는 가끔 무료함이 찾아올 때 무언가 흥미 있는 일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자는 이미 영구출입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카지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 카지노 출입은 완전히 포기했다고 한다. 그 대신,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이면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는 등 나름대로의 취미활동을 찾아 움직였다. 현재 사례자가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한다. 사례자는 도박에만 빠져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혼자였다. 사례자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단도박자들과 자주 만난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례자의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 사례자의 구술에 의하면, 혼자 늘어가는 자신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온다고 한다. 이것이 사례자가 극복해야 할 도박중독의 상처인 것이다.

라. 사례자 4

사례자 4는 63세 여성으로 카지노 도박에 중독되었으나 2014년에 단도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자는 평범한 주부였다.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을 잘 보좌하고 하나있는 딸을 잘 키우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자 소망이었다. 그렇게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례자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밖으로만 나도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카지노에

가게 되었다. 처음 간 카지노에서 그녀는 엄청난 재미를 느꼈다고 한다. 슬롯머신에 돈을 넣을 때마다 돈을 땀기 때문이다.

사례자는 카지노에서 재미를 느낀 후 주말이면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재미도 잠시였다. 카지노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돈을 잃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박에 점점 빠지다 보니 사례자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으며, 집에서 나와야 했다.

이혼 후에도 그녀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박을 하기 위해 사례자는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남아있는 전 재산을 도박에 베풀었다. 결국 사례자는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빈털터리가 된 그녀는 집세도, 밀린 공과금도, 심지어는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그녀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례자는 고민 끝에 식당에 취업했다. 식당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사례자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했다. 1년 간 꾸준히 돈을 모으자 생활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 하지만 사례자는 육체적 노동으로 몸이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때 도박의 유혹이 다시 찾아왔다. 사례자의 구술에 의하면 사례자는 빚에 쫓기는 게 없어 마음이 편해지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다시 카지노 생각이 났다고 한다. 카지노에 들어가면 게임을 즐기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1년 간 모은 돈을 들고 다시 카지노에 들어갔다. 하지만 흑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루만에 1년 간 모은 몇 백만 원을 다 날린 것이다.

재발을 경험한 사례자는 충격을 받고 상담사를 찾아갔다. 사례자의 구술에 의하면 그때 당시 그녀는 '이대로 살다고 말년이 비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상담사의 도움으로 카지노 영구출입정지 신청을 했다. 그녀의 구술에 의하면 출입정지 신청서를 내고 상담센터에서 나오면서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에 한 숨만 나왔다고 한다.

출입정지 신청 이후 사례자는 다시 식당에 취업했다. 그리고 단도박 모임에 참여했으며 중독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단도박 모임에서 도박하는 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카지노에서는 온통 도박 얘기뿐이었는데 단도박 모임에서는 서로 위안이 되는 말들을 주고

받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례자는 도박으로 인해 얻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사례자는 단도박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노인요양원 봉사활동이었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례자는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한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현재 사례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으며 늘그막에 기거할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라도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라고 한다.

마. 사례자 5

사례자 5는 62세 여성으로 카지노 도박에 중독되었으나 2013년에 단도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사례자는 잘 나가던 자영업자였다. 가끔 친구들과 바람 쐬러 여행을 갔는데, 2001년 어느 날 강원도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때 사례자와 친구들은 바람 쐬러 간 김에 카지노에 찾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사례자가 가지고 있던 카지노에 대한 생각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멋진 장면이었다. 사람들이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출입하는 장소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환상적인 곳에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지노에 들어선 순간 사례자의 환상은 깨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눈 비추어진 카지노의 풍경은 상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사례자의 구술에 의하면, 드레스는커녕 모두 피죤진 사람들만 앉아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게임만은 재밌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돈만 넣으면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틈만 나면 카지노로 향했다.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다보니 완전히 맛이 들렸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자 사례자는 배당률이 높은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 번에 큰돈을 딸 수 있다는 욕심에 룰렛과 바카라 등과 같은 사이드 게임으로 관심을 돌렸다고 한다. 처음에는 곧잘 맞았다. 돈을 크게 뺏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도가 지나쳐 돈을 잃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속해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례자는 카지노에 상주하기 시작했으며 운영하던 사업마저 정리했다. 사례자의 구술에 의하면 계속해서 돈을 잃자 재미가 오기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 1억 정도의 재산과 집 한 채 남겨두고 모든 가게를 정리하기 전까지 사례자는 자신만만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이 베풀하면 한 번에 많이 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사서 대리베팅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운은 따라주지 않았다. 하루는 큰돈을 가지고 와서 9명이나 되는 대리베팅을 감행하였고 가져온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이때 사례자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이 일로 사례자는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다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이제 돈도 한 푼 없고 더 이상 대출도 어려워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몰라 사례자는 강원도에 있는 식당에 취업을 했다고 한다. 식당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더 힘든 것은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다. 한 번도 남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던 사례자는 거칠게 대하는 손님들의 비유를 맞춰야 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자 몸도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그때면 자존심도 상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힘들 때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게랑 집이랑 다 잃을 때는, 누가 손가락질 하고 수근 거리는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한 것이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6개월 정도 지나자 사례자의 생활은 조금 나아졌다. 6개월간은 단도박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생활고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 도박의 유혹은 편안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다. 사례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다시 도박 생각이 났다고 한다. 결국 사례자는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풀 겸 30만 원 정도만 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고 한다. 재발하고 만 것이다. 절제는 사례자의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 카지노에서 나왔지만, 그것도 잠시 잃고 따는 일이 반복되자 새벽까지 카지노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 더 이상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례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카지노에 귀신이 있다”고 표현했다. 조절하면서 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일단 카지노에 들어가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사례자는 몇 개월 간 식당일을 하고 다시 카지노로 향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을 때마다 사례자는 카지노 출입정지신청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정지해야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카지노에서 생활비라도 벌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정지를 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출입정지 기회를 놓친 사례자는 1년 간 다시 카지노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에 300만원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때 더 이상은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으며, 출입정지 신청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때마침 중독관리센터

상담사와 연결이 되어 출입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출입정지 신청을 하고나니 마음을 비우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따고 왔다는 소문이 들면 잠시 도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을 정리하게 됐다고 한다. 특히, 사례자는 봉사활동을 통해 단도박 의지를 더욱 강하게 먹었다고 한다. 주로 노인 요양원 봉사 활동을 하는데, 자신이 남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하며,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펐다고 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며, 현재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다.

사실 사례자가 카지노 출입정지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단도박에 대해 생각하고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정지신청 이전부터였다. 사례자는 출입정지 신청 이전부터 중독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단도박 모임에 나갔다고 한다. 그 속에서 사례자는 상담사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에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상담사는 단 한 번도 도박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웬지 끊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임이 있는 요일이면 카지노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카지노에 가는 것보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고 한다.

2. 사례 간 분석

연구자들은 사례 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9개의 사례 내 주제들을 도출해냈으며, 이를 범주화하여 13개의 사례 간 주제들을 뽑아냈고, 이를 재구성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개별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 주제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 없음(사례자 1) 도박에 미쳐 자식의 돈까지 날린 것을 후회함(사례자 2)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됨(사례자 4) 카지노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함(사례자 5)	깨어진 환상 단도박 계기
도박을 계속하면 남는 것 죽음 밖에 없음(사례자 1) 이렇게 살다 홀로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음(사례자 3)	죽음불안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 주제	
이대로 살다가 말년이 비참해 질 것 같음(사례자 4)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비참할 것 같음(사례자 5)		
혼자 살다보니 고독감을 느낌(사례자 1) 혼자 살다보니 도움을 받을 수 없음(사례자 2) 평생 혼자 살아 늘 외롭다는 생각이 들(사례자 3)	고독감	
과거를 생각하면 참 허망함(사례자 1) 지난날에 대한 후회로 술과 함께 살아감(사례자 2)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사례자 4)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 불안함(사례자 1)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삶이 막막함(사례자 2) 공과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함(사례자 3)	불안한 노후	단도박 후 갈등 요인
늙고 힘이 없어서 누가 써주지 않음(사례자 1) 도박을 끊고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음(사례자 2) 점점 몸이 힘들어 일을 못하겠음(사례자 4) 나이 들어 몸도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음(사례자 5)	늙은 몸	
혼자 있으면 흥미 있는 일에 빠지고 싶어짐(사례자 3) 혼자 설 때 도박 생각이 찾아옴(사례자 4)	무묘함	
즐기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다고 여김(사례자 4) 조절하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여김(사례자 5)	생활도박의 유혹	
단도박 모임을 만들고 상담사와 자주 소통함(사례자 1)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함(사례자 2)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사로 살아감(사례자 3) 단도박 모임에서 서로 위안이 되는 말을 주고받음(사례자 4) 단도박 모임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함(사례자 5)	새로운 생활세계 구축	
살기 위해 용역 사무소에 찾아감(사례자 1)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함(사례자 2) 호텔, 식당 등에서 일을 시작함(사례자 3)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시작함(사례자 4) 사회적 기업을 동료들과 만들어 운영함(사례자 5)	생활고 극복	
상담을 통해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깨달음(사례자 1) 가족처럼 대해주는 상담사를 통해 위안을 얻음(사례자 2) 도박중독자들의 모습에서 과거 나를 발견함(사례자 3)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보면서 지난날을 반성함(사례자 4) 요양원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 미래 모습을 생각함(사례자 5)	타자를 통한 반성	회복 방식
틈만 나면 산책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함(사례자 1) 시간만 있으면 등산을 함(사례자 2) 교육, 심리치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사례자 3) 중독관리센터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사례자 4)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사례자 5)	대안적 활동	

사례 내 주제	사례 간 통합 주제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할 계획임(사례자 1)	
맘 편히 거저할 방 한 칸 마련하고 싶음(사례자 2)	소박한 꿈과 희망
중독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음(사례자 3)	생성
늘그막에 거저할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이 꿈임(사례자 4)	

가. 깨어진 환상

사례자들(사례자 1, 2, 4, 5)은 단도박 이전에 도박에 빠져있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사례자 1과 5는 카지노를 상대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사례자 2의 경우 도박에 미쳐 자식의 돈까지 날린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사례자 4의 경우 도박장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선행연구에 기반할 때 일반적으로 도박중독자들은 ‘바닥체험’을 하면서 단도박을 결심한다(송진아, 2011, p.232).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도박을 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미 과거에 바닥체험을 했다. 모든 사례자들은 10년 이상 도박을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성인 도박자의 경우 주로 바닥을 치면서 회복의 길로 향하게 되는데, 노인 도박자의 경우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새벽에 카지노 문 닫을 때까지 기계 보면서 앉아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앉더라고요. 근데 잭팟이 터진 겁니다. 와! 미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 기계는 이길 수 없다. 카지노를 상대로 이긴다는 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 나와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 도박문제 센터인가? 거기에 (사례자 1).”

나. 죽음불안

사례자들은 앞서 언급한 깨어진 환상과 더불어 죽음불안을 경험함으로써 단도박을 결심할 수 있었다. 사례자들(사례자 1, 3, 4, 5)은 도박으로 인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죽음을 걱정했다. 사람이면 누구는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든

타자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기에 죽음은 우리를 자신 안에 홀로 머물게 한다(Heidegger, 1979). 이때 주체는 자신의 존재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지는 않는다. 노년기와 관련해 다루어지는 중요한 주제가 죽음임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다가올 죽음에 대한 생각이 노인 도박자인 사례자들의 단도박을 이끄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결혼도 안 했지, 자식도 당연히 없지,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혼자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 죽자! 그래서 뭐라도 막 한 거죠 (사례자 3).”

다. 고독감

노년기는 배우자 및 친구, 직업 상실 등 얻는 것 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상실의 시기’라고도 한다(권중돈, 2009, p.21).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고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고독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최송식, 박현수, 2009, p.1287). 이때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잘 형성한 노인들은 조금이나마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도박자들은 오랫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좋은 관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고독감을 더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연구결과 사례자들(사례자 1, 2, 3)은 관계단절로 인해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자들은 도박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거나 유지하지 못해 혼자 살아야 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사례자들은 항상 고독감에 시달렸다.

“마누라 죽고 자꾸 외로운 생각이 들어 도박을 하기 시작 했는데, 지금은 도박 때문에 자식들 하고 인연도 끊겨 버렸어요. 명절 때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끔 외롭다는 생각을 해요(사례자 2).”

라.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

회복중인 노인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였다. 단도박 이후 삶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사례자들(사례자 1, 2, 4)은 도박에 써버린 과거의 시간에 대해 후회했다. 물론 성인 단도박자들도 과거에 대해 후회한다. 하지만 노인 도박자들의 후회는 더 깊은 것이었다. 사례자 1의 언급처럼 사례자들의 후회는 ‘허망감’이었다. 특히, 사례자 2는 이 허망감으로 인해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기계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덤뻐오니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사례자 1).”

“도박을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휴~결국 본전도 못 찾을 걸..왜 그렇게 도박에 미쳐 살았을까 하는 참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사례자 4).”

마. 늙은 몸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이다. 이 몸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점점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사례자들에게도 노화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렇게 찾아온 노화는 사례자들의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도박중독에서의 회복은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강준혁, 엄다원, 이혁구, 2017, p.149). 사례자들(사례자 1, 2, 4, 5)은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례자들은 늙고 아픈 몸 때문에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도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있었지만 사례자 1의 경우처럼 사회에서도 써주지 않아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일반 성인 도박 중독자는 육체적 건강을 기반으로 노인 도박 중독자 보다 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도박 중독자들의 경우 육체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단도박 의지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늙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 몸도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 비유도 맞춰야 하고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 속상해서 그래서 카지노 가서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힘들었죠.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사례자 5)”

바. 무료함

노년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일과 관련된 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다(김진욱, 2006, p.171).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여러 연구에서 이미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만족도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권중돈, 조주연, 2000, p.72;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2010, p.54). 하지만 면담 결과 노인 도박자들에게 있어 여가 시간은 삶의 만족 보다는 재발 위험성과 관련이 있었다. 사례자들(사례자 3, 4)은 혼자 시간을 보낼 때 도박생각이 났다고 한다. 물론 성인 도박자도 여유 시간에 도박을 생각할 수 있으나, 노인 도박자에 비해 성인 도박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에 노인 도박자의 경우 무료함을 극복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다. 다른 대안적 활동을 찾아야 한다.

“가만히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흥미로운 일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도박 생각도 나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것저것 프로그램에 다 참석했어요(사례자 3).”

사. 불안한 노후

노년기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걱정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 노후자금을 준비한다. 하지만 노인 도박자의 경우 도박에 많은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석 결과 모든 사례자들은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일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기초연금이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사례자들은 노화로 인해 고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꿈꾸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한 노후생활은 자연스레 다음 주제인

‘생활도박의 유혹’을 만들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차비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기 뭍니까? 저기 주민센터에 찾아갔죠. 거기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참 잘 도와줬어. 가족도 다 떠나고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하나까.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만들어주고 (사례자 2).”

아. 생활도박의 유혹

‘생활도박’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도박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강준혁, 이혁구, 2016, p.15). 쉽게 말해 ‘생계형 도박’을 뜻한다. 사례자들(사례자 4, 5)은 단도박 과정에서 생활도박의 유혹에 시달렸다. 왜냐하면 사례자들은 불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있지만 ‘늙어가는 몸’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불안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으며, 고독하게 보내는 무료한 시간을 견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자들은 도박장에서 카지노에서 즐기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며(사례자 4), 베팅 액수 조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사례자 5). 결국 이 이러한 생활도박의 유혹은 사례자들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단은 몸이 힘드니까, 이제 힘든 일도 못하겠고, 거기(카지노) 들어가면 그래도 어찌어찌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사례자 4).”

자. 새로운 생활세계 구축

모든 사례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도박세계가 아닌 다른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사례자들은 도박장에서 나와 도박중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도박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자들은 도박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매일 도박하는 사람들만 만나다가, 단도박 모임에 나가서 언니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 좋은 얘기도 나누니까 뭔가 힘도 얻고 너무 좋아요(사례자 4).”

차. 생활고 극복

모든 사례자들은 도박으로 인해 생활고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회복 과정에서 사례자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었다. 사례자 1, 3, 4의 경우 일을 찾아 나섰으며, 사례자 2의 경우 지역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사례자 5의 경우 동료 단도박자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사례자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을 아는 언니, 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앞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사례자 5).”

카. 타자를 통한 반성

모든 사례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타자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체험을 했다. 사례자 1과 2는 상담사를 통해 깨달음과 위안을 얻었으며, 사례자 3의 경우 다른 도박중독자들을 보면서 과거 자신을 돌아봤고, 사례자 4와 5의 경우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했다. 이를 통해 노인 도박자의 회복에 있어서 타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끔씩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요양원에 가서 청소하고 목욕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참 놀란 게, 거기 계신 어르신들 보면서...아 저 모습이 내 미래에 모습이구나. 나도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구요(사례자 5).”

타. 대안적 활동

노년기는 외부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이다. 외부활동 부족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해 왔다(권중돈, 조주연, 2000, p.72;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2010, p.38). 그래서 노년기에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 노인들과 달리 사례자들의 여가 시간은 도박과 관련되어 있었다. 사례자들은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무료함을 견디는 방법으로 도박을 선택해 왔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도박보다 재미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례자들(사례자 1, 2, 3, 4)은 회복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책, 봉사활동, 각종 단도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자 노력했다.

“틈만 나면 산에 가는 거야. 집에 있어 봐요. 예날 생각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산책하고 여기 센터에서 뭐 한다면 거기에 참석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사례자 2).”

파. 소박한 꿈과 희망

꿈과 희망은 삶의 동기로 작용한다. 특히, 노년기의 꿈과 희망은 삶을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김유진, 2013, p.142; 임은혜, 2014, p. 184; Kissane & McLaren, 2006). 사례자들(사례자 1, 2, 3, 4)은 젊은 세대처럼 큰 꿈은 아니지만 소박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자 1은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며, 사례자 3의 경우 중독전문가가 되어 다른 도박중독자들을 돕고 싶어 했고, 사례자 2와 4는 늘그막에 편히 거처할 공간 마련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러한 꿈과 희망은 회복의 동기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해는 꼭 방송통신대학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조경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는데, 그거 배워서 산림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사례자 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 도박자들이 어떻게 도박중독에서 회복되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더불어 노인도박자들의 회복과정에서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사례자들은 자신의 도박문제를 인정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단도박을 시작했다. 사례자들은 단도박을 시작했지만 고독감, 허송세월에 대한 후회, 불안한 노후, 늙은 몸, 무료함, 생활도박의 유혹 때문에 갈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자들은 도박장과 도박자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롭게 생활세계를 구축했고 일을 하면서 생활고를 극복해 나갔다. 또한 사례자들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했으며, 대안적 활동을 통해 무료함을 극복해 냈다. 이 과정에서 소박한 꿈과 희망은 사례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이다. 연구결과 사례자들은 회복과정에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가령 사례자들은 늙은 몸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으며, 노후불안과 무료함 때문에 힘들어 했고, 혼자 살면서 생긴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국 이 문제들은 즐기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생활도박의 유혹'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자의 회복에 관한 기존 연구들(윤명숙, 채완순, 2010, p.289; Anderson et al., 2009; Ferentzy et al., 2006; Hodgins et al., 1999; Hodgins & El-Guebaly, 2000; Hollander et al., 2005; Leung & Cottler, 2009)은 노년기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도박자의 회복을 다룰 때는 노년기의 다양한 특성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연구결과 노인 도박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며, 이 불안은 단도박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도박으로 인해 다가올 죽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이 단도박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실천가들은 도박중독자에게 죽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도박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성찰의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인 도박자들은 고독감, 무료함 등 도박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잊기 위해

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카지노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 도박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카지노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 도박자들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도박중독자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 회복을 위해서는 생활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 도박자와 달리 노인 도박자는 육체적 노화로 인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도박자들은 적은 돈이라도 좀 더 편하게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결과 노인 도박자들은 도박이 중심이 된 세계가 아닌 회복이 중심이 된 생활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이들은 그 속에서 위안을 얻었으며 도박에 대한 생각보다는 회복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실천가들은 노인 도박자들이 도박장이 아닌 그리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도박이 아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카지노 주변 노인 도박자 사례에 집중했기 때문에 카지노 도박이 아닌 다른 사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도박 종류를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결과 육체적 노화, 사회적 관계 단절, 죽음불안 및 고독감 등과 같은 노년기 문제들은 노인 도박자들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도박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반도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노년기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강준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박이며, 현재 도박 중독원인, 회복, 재활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unhyeok@sogang.ac.kr)

주완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이며, 현재 노인자산, 생활만족도, 사회적 참여, 도박중독의 회복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kwwee34@naver.com)

참고문헌

- 강준혁, 엄다원, 이혁구. (2017). 단도박자의 생활고 극복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사회복지연구*, 48(4), pp.121-156.
- 강준혁, 이혁구. (2016). 단도박자의 실존 재구성 과정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pp.5-32.
- 권영실, 김현정, 김소라, 현명호. (2014).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도박 빛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2), pp.603-622.
- 권중돈,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권중돈. (2009).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김세건. (2008). *베티하는 한국사회*. 서울: 지식산업사.
- 김영주, 이인해. (2010). 도박 중독 취약성과 억제 능력의 결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pp.817-840.
- 김영훈. (2005).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김유진. (2013).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1), pp.127-146.
- 김진옥.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학회*, 32, pp.149-177.
- 김충렬. (2010). 도박중독의 원인에서 의지적 요인의 연구. *신학과 실천*, 22, pp.209-254.
- 김태현. (2007). *노년학*. 파주: 교문사.
- 김한우. (2013). *왜 우리는 도박에 빠지는 걸까*. 서울: 소울메이트.
- 박지용, 전진숙, 권명환, 박신형, 오병훈. (2008). 한국 남성 노인의 도박에 영향 미치는 요인. *생물치료정신의학*, 14(1), pp.77-84.
- 백종욱, 김성오, 김미양. (2010).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업연구*, 7(1), pp. 37-5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서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2016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송진아. (2011). 도박중독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pp.213-237.
- 안상원, 한상철. (2013). 도박 중독자의 2차 범죄화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치료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국중독범죄학회보*, 3(1), pp.90-114.
- 왕명자. (2010).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자기효능감,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1), pp.101-109.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윤명숙, 채완순. (2010).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한국사회복지학*, 62(3), pp.271-297.
- 이근무, 강준혁, 이혁구. (2015). 카지노 도박중독 과정과 내용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46(1), pp.31-57.
- 이동욱. (2007).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에 관한 고찰. *여성건강*, 8(1), pp.513-521.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pp.399-414.
- 이준복, 윤상연, 허태균. (2014). 누가, 왜 불법도박을 할까?: 불법도박 경험 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pp.155-176.
- 임은혜. (2014). 노인의 우울증 개성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희망이론의 적용. *연세 상담코칭연구*, 2, pp.167-188.
- 채정아. (2013). 단도박자의 회복유지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최송식, 박현수. (2009).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도농복합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29(4), pp.1277-1293.
- 홍혜미, 김용근. (2014). 여성 노인 도박자 생애사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2), pp.63-90.
- Abbott, M., & McKenna, B. (2005). Gambling and problem among recently sentenced women in New Zealand prison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4), pp.559-581.

- Anderson, S., Dobbie, F., & Reith, G. (2009). Recovery From Problem Gambling: A Qualitative Study.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rach for the Gambling Commission*. Edinburgh: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 Blaszczynski, A., McConaghy, N., & Frankova, A. (1989). A Crime, Antisocial Personality and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5(2), pp.137-152.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ition)*. New York: Sage publications.
- Custer, R. L. (1984). Profile of the pathological gambler.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5, pp.35-38.
- Echeburúa, E., Fernández-Montalvo, J., & Báez, C. (2001). Predictors of Therapeutic Failure in Slot-Machin Pathological Gamblers Following Behavioural Treatment. *Behaviou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29(3), pp.379-383.
- Ferentzy, P., Skinner, W., & Antze, P. (2006). Recovery in Gamblers Anonymous. *Journal of Gambling*, 17, pp.1-18.
- Heidegger, M. (2008).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서울: 까치글방. (원서출판 1979).
- Hodgins, D. C., & El-Guebaly, N. (2000). Natural and Treatment Assisted Recovery From Gambling Problems: A Comparison of Resolved and Active Gamblers. *Addiction*, 95(5), pp.777-789.
- Hodgins, D. C., & El-Guebaly, N. (2004).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Reports of Precipitants to Relapse in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1), pp.72-80.
- Hodgins, D. C., Wynne, H., & Makarchuk, K. (1999). Pathways to Recovery From Gambling Problems: Follow-up From a General Population Survey.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2), pp.93-104.
- Hollander, E., Sood, E., Pallanti, S., Baldini-Rossi, N., & Baker, B. (2005). Pharmacological Treatments of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1), pp.99-108.
- Kissane, M., & McLaren, S. (2006). Sense of belonging as a predictor of reasons

- for living in older adults. *Death Studies*, 30(3), pp.243-258.
- Lemon, B. W., Bengtson, V. L., & Peters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pp.511-523.
- Leung, K. S., & Cottler, L. B. (2009). Treatment of Pathological Gambling.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2(1), pp.69-7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Miller, L. M., & Carpenter, C. L. (2009). Altruistic leadership strategies in coaching: A case study of Jim Tressel of the Ohio State University. *A Journal for Physical and Sport Educators*, 22(4), pp.9-12.
- Padgett, D. K.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서울: 나남출판. (원서출판 1998).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ndon: Sage.

A Qualitative Case Study of Recovery from Gambling Addiction in the Elderly: Focus on Casino Gambling Addicts in Recovery

Kang, Jun-Hyeok
(Sogung University)

Joo, Wan-Ta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elderly gamblers. A total of five cases were selected through reputational case selectio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e-to-one in-depth interview.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proposed by Creswell (2013). First, we attempted 'within-case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cedure. This revealed the context of the recovery experience of the gambling addicts. Second, a total of 13 integrated cross-case topics were extracted from cross-case analy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lderly gamblers started to stop gambling through disillusionment and death anxiety and conflicted in the process of recovery due to the loneliness, the regret of the years, the anxious aging, the old body, the joyfulness, and the temptation of life gambling. However, they were escaping from gambling addiction by constructing a new life-world, overcoming everyday obstacles, self-reflection through others, alternative activities, and having simple dreams and hope cre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covery programs that reflect the need for opportunity to reflect death, increase access to services, provision of jobs for senior citizens, and generation of recovery environment.

Keywords: Elderly, Gambling, Addiction, Recovery, Case Study